

오전 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 예배부름	..... 인도자
※ 예배기원	..... 인도자
※ 경배찬송	.....44장(지난 이레 동안에) ..... 다 같이
※ 교독문	..... 30(시편 67편) ..... 다 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찬송	..... 79장(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다 같이
예배기도	..... 박홍만장로
응답송	..... 찬양대
이달의찬양	.....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 다 같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 다 같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li> <li>*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li> <li>* 고향을 찾는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li> </ul>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 신명기 16:13-15..... 이춘호권사
찬양	.....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절기의 의미 >
기도	..... 최세열목사
◆응답하는 예배◆	
찬송	.....412장(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 다 같이
봉헌	..... (말은이) ..... 다 같이
봉헌기도	.....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 말은이
※ 찬송	.....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같이
※ 축도	..... 최세열목사
※ 축복송	..... 찬양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b>찬양예배 / 오후2시</b>		<b>수요예배 오후7:30분</b>		<b>시백기도회(월-금)</b>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기도 / 한마음기도 본문 / 뱀전1:13-21 말씀 / 최세열목사 “성도의 거룩한 삶” 주기도문 / 다같이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마가복음강해)	
				<b>금요기도회</b>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한순 김금자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다음주 기도	1부	박기환집사
	현금위원	9월 공영순 신혜영 김근중 이종열 10월 김애자 박상귀 이완수 김장숙	다음주 성경봉독	2부	강항구장로
	식당봉사	금주 없음	다음주 에스더A	1부	인도자
	헌신찬양	금주 말은이	다음주	2부	정숙자권사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김순님권사		
		다음주	8 구역		

### 절기의 의미 / 신명기 16:13-15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민족 명절이 되면 마치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명절문화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일종의 제사문화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래적인 의미에서 절기문화는 좀 더 깊은 뜻과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기의 고유한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 절기는 하나님과 사람사이를 이어줍니다.

본문속의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절기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보듯이 초막절은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다 거둔 후에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단지 농사를 종결짓는 절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결실을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로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추석의 의미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모든 열매를 주신 하늘에 감사하고, 다음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절기로 지킨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절기는 하나님과 사람사이를 이어주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기를 지내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절기는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이어줍니다.

초막절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통해 과거 광야40년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추석절기 역시 과거와 현재를 이어줍니다. 조상들의 산소에 가서 벌초를 하고, 명절 아침에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은 과거의 사건들과 역사를 현재와 시키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존재하게 한 선조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뿌리와 그 의미를 생각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절기로서만이 아니라 현재는 곧 미래와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현재의 삶의 결과로서 미래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남겨질 믿음의 유산을 생각해야 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생애도 인도하시고 복 주심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3. 절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줍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너와 네 자녀는 가족과 친지를, 노비들은 함께 땀 흘려 농사에 참여한 사람을, 레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돕는 자를, 객과 고아와 과부는 연약한 나의 이웃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웃과 함께 즐기는 명절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민족은 추석절기에 함께 만나 삶을 나누고, 위로와 용기를 주며, 함께 하는 놀이문화를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했습니다. 추석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어지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절기를 자기 성찰과 결단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선조들은 한가위 보름달을 보면서 자연의 순환과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에 이르러 겨울을 앞에 두고 지나온 시간 돌아보고 다가올 계절의 겨울과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지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남은 생애를 새롭게 결단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창조절 둘째 주(2014.9.12.)

### 제37과 구원의 열매가 달리다(이사야 55장 1-5절)

(함께 읽을 말씀 : 요한일서 1:1-4, 누가복음 10:38-42)

#### 말씀묵상

1.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은 땀 흘려서 얻을 수 있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 언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이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포로 되었던 유다 백성이 바빌론에서 풀려나고,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음에도 거듭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이지 백성이 어떤 선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값으로 얻거나 어떤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고 합니다.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마리아처럼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2.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한가위를 지냈습니다. 이 열매들은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한 노력과 수고는 쓸모없는 것일까요? 이사야는 거저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다음에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을 것과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감사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응답으로 자신들의 삶을 고치는 노력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의 선한 삶과 열심과 노력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선한 삶이 구원의 선행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행실은 구원받은 삶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의 열매를 맺은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3. 서울역 앞에서 우동을 팔며 고생 끝에 마련한 서울 장위동 빌라 한 채(85m)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998년 11월 유언공증으로 경희대학교에 기증했던 김복순 할머니가 지난 10일 8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고(故)김복순 할머니가 경희대학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98년 11월, 사후에 평생 모아 마련한 자신의 빌라를 기증하겠다는 약속으로 시작됐고, 그 사랑의 나눔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2002년 4월에는 평생 모은 돈을 기증하겠다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 8,800만원 전액을 대학 측에 맡겼다. 할머니는 어려운 생활에도 오갈 곳 없는 세 딸을 모두 입양해 양육하기도 했다. 이미 9년 전 김 할머니의 세 딸은 "우리를 이만큼 키워 주신 것만도 고마워요. 그 이상 무얼 바라겠어요"라는 말과 함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지금까지 할머니와 함께 장위동 빌라에서 살고 있었던 막내 딸 미진씨(26)는 어머니의 고귀한 뜻에 따라 빌라기증(시가 2억 7,000만원) 실천을 위해 이사할 예정이라고 한다(출처: 2007년 8월 15일자 한국일보).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우리는 지금 추석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9월 제직회는 다음주일에 모이겠습니다.
3. 해든솔 선교활동이 이번 주 토요일(13일)에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8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4. 오늘 찬양예배와 명절기간동안(월-수요일) 새벽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는 모이겠습니다.

**정신적 유산**

미국 조지아주립대학의 경제학 박사 토머스 스탠리 교수가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최근 20년 동안 미국을 움직이는 백만장자들의 성장과정과 부침(浮沈)의 역사를 연구했다. 그 결과 미국의 재벌 중 80%는 중산층 또는 노동자 출신이었다.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부자들은 겨우 20%에 불과했다.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유산’ 대신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근면 성실 정직 용기 신앙’등 정신적 유산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그들은 이 물질을 이웃을 위한 선한 사업에 사용했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많은 물질은 잘못 관리하면 곧 사라진다. 그러나 정신적 유산은 평생의 보물이 된다. 준비가 안 된 자녀에게 물려주는 많은 재물은 그를 방탕과 향락의 늪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배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

뉴델리에서 북부 편잡 지방의 아드리차르로 가는 여덟 시간 거리의 2등칸 기차 안에서 자이나교 출신의 한 노인과 이런저런 한담을 나누었다. 그러다가 문득 노인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 현상뿐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들로부터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람으로부터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하고, 강으로부터는 더 큰 세계로 나아감을 배워야 하며, 인간이 만든 기차로부터는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간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나는 문득 생각이 나서 물었다. 신발로부터는 무엇을 배워야 하죠? 그가 말했다. 어떤 어리석은 자가 쓸데없는 걸 발명하면 그것이 얼마 안 가서 전 세계에 퍼져버린다는 걸 배울 수가 있지. 그것도 그럴듯해 보여서 나는 다른 걸 물었다.

그럼 내가 들고 있는 이 배낭으로 부터는요?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안에 먹을 것이 들어 있으면 앞에 앉은 사람과 나눠 먹어야 한다는 것!

**9 월의 행사**

1. 남신도주일(평신도 참여예배) - 9월 21일 / 남신도회
2. 제직회 : 9월 14일
3. 해든솔선교활동 9월 13일
4. 노회
  - 남신도회주관 목회자위로회(9.18일 / 원천교회)
  - 경기5개노회 노회원체육대회(9.15일 /군포)
5. 한국기독교장로회 제99회총회 :
  - 9월 23일 - 26일 / 변산대명리조트
  - 주제 :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회하는 교회

**향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임병호 김경희 안복선 김애경 이문순 김기수 신혜영 이경희 김근중 주종임 양희임 노순영 엄정현 천사라 윤승호 최경선 김춘자 김혜경 정숙자
- 감사헌금 : 김지환 박정일 이문순 이영란 박광선 김정안 김범진 이종춘 심문자 정재영 김병국 김기희 김동현가정 김지환가정 (일천번제) 김동현
- 건축헌금 : 김혜경 임병호 김경희 조은미
- 비전씨앗 : 배영인 노순영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사 무 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4-36

2014.9.7.

**9월의 기도 - 창조절 첫째주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흠으로 사람을 지으사  
거룩한 영을 불어넣으신 주님!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볼 때  
온 세상에 가득한 주님의 섭리를 느끼며  
창조절 첫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몸과 맘을 정결케 하여 주소서.  
성령의 주님을 모시는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소서.  
특별히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부르셨으니,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폭력과 거짓, 오만으로 일그러진 역사 속에서  
인권을 잃고 차별당하며 사는 재일동포를 위로하며  
이 땅에서 소외된 이주민의 손을 잡아주고,  
여전히 마르지 않는 세월호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어우러지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게 하소서.  
그 일을 감당하는 가장 교회가  
삼천리강산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나날이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한가위에 가득한 오곡백과처럼  
신앙의 열매도 가득하게 하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진도사: 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